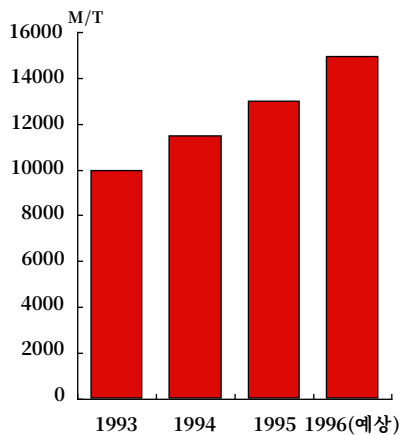


나일론 단섬유 시장재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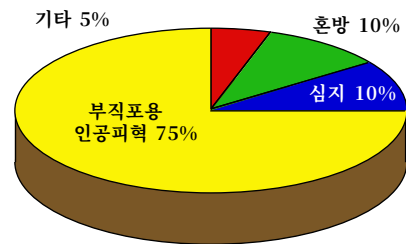
효성T&C, 연간 6000톤 본격생산 ... 96년 내수 1만5000톤

국내 나일론 단섬유 시장에 효성T&C가 신규 진출함에 따라 시장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효성T&C(대표 김인환)가 생산에 들어간 부직포용 SF(Staple Fiber)는 규모화를 통한 안정공급은 물론 품질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수입대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나일론 단섬유 내수추이



나일론 단섬유 수요구성비



관련업체에 따르면, 국내 나일론 단섬유 시장은 93년 1만톤, 94년 1만1500톤, 95년 1만3000톤 등으로 집계됐으며, 96년에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1만5000톤이 예상되는 등 매년 13~15%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나일론 단섬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생활 향상에 따라 각종 스포츠용품 생산이 증가하는 등 국내 인공피혁 부직포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보호 운동으로 인해 천연피혁 생산이 감소해 점차 인공피혁으로의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나일론 단섬유 공급은 고합(연산 1만톤 생산능력 보유)이 연간 6000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비롯, 2~3개 중소기업에서 5000톤, 일본·독일 등 수입제품이 4000톤 등 1만5000톤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T&C는 96년10월경 연산 6000톤 규모로 신규진입해 96년 하반기이후 수입산과의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예상되고 있다.

93년부터 자체개발해 파일럿 규모로 소량 생산해온 효성T&C는 독일의 최신설비를 도입, 품질제고를 위해 현재 수입되고 있는 일본과 독일산(연산 100억원 상당규모)을 전면 국산으로 대체시킴은 물론 일본을 비롯, 대만·AUS 등지로의 역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나일론 단섬유 수요처로는 10여개 부직포 생산기업들이 있으며, 국산과 수입품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

나일론 단섬유의 용도별 구성비를 보면, 부직포용 인공피혁용이 75%를 차지해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심지용 10%, 혼방용 10%, 기타 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나일론 단섬유 내수가격은 10월현재 고합 등 국산이 Kg당 2400~2500원에, 도레이·유니티카 등 일본산과 독일 로발리스제품 등 수입산은 Kg당 2700~28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